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4일 수요일 음 12월 17일 (9월)

기상정보



| 오전 | 강수 확률 | 오후 |
|-----|-------|-----|
| 20% | 제주 | 20% |
| 20% | 성산 | 20% |
| 30% | 고산 | 30% |
| 20% | 서귀포 | 20% |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많음 7/16°C
모레 흐리고 비/눈 2/10°C

구름많음

제주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5°C, 낮 최고기온은 12-13°C로 예상된다. 내일까지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 해뜰 07:28 | 달뜰 20:40 |
|----------|----------|
| 해침 18:07 | 달침 08:47 |
| 만조 12:29 | 간조 06:22 |
| — | 19:01 |

| 자외선지수 | 산불위험지수 |
|-------|--------|
| 낮음 | 낮음 |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日조세이탄광 잠수조사, 추가 유골 안 나와

6일부터 다시 작업

1942년 수몰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사망한 일본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우베(宇部)시 조세이 탄광에서 3일 유해 수습을 위한 잠수조사가 재개됐지만 인골이 추가로 나오지는 않았다.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水非常)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하 새기는 모임)은 이날 오전 탄광 해저 쟁도 내 조사를 시작했고, 일본인 잠수조사 이사지 요시타카 씨가 잠수조사 약 3시간 만에 인골 없이 물으로 돌아왔다.

이사지 씨는 잠수조사 직후 취재 진과 만나 장비 문제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턱한 해저 환경 때문에 무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탄광 출입구 인근 시계(視界·시력)에 미치는



일본인 잠수조사가 3일 유골 조사를 마친 뒤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위)가 겨우 10cm 정도라고 전했다. 새기는 모임은 6일부터 11일까지 조세이 탄광에서 유골 수습을 위한 잠수 조사를 이어간다. 이들이 인골을 수습할 경우 조세이 탄광 간구(坑口) 광장에 안치된다.

조세이 탄광은 우베시에 있었던 해저 탄광이다. 해저에 쟁도가 있어 특히 위험했고 조선인 노동자가 유독 많아 '조선탄광'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육 편집국장 고 대 로

④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기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건강&생활



한 치화
제주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근처 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의 가족이 당혹스럽게 "호스피스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라고 질문을 해왔다. "지금은 암을 완치시키려고 열심히 치료하는 단계이지, 호스피스를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해 줬다. 호스피스는 오래전 서구 사회에서 병든 순례객들을 돌보는 활동으로부터 시작됐으며 근대적인 개념의 호스피스는 195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이 죽음에 앞서 휴식하는 장소로 모든 이와

호스피스를 아시나요?

작별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가다듬고 완결하는 장소',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돌봄', '적극적인 치료가 아니라 적극적인 간호와 증상관리',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입원 간호와 가정간호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호스피스의 정의가 점점 구체화됐다.

호스피스의 완전한 실천을 위해서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의료적 돌봄인 완화의료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활동은 1965년에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이 강릉에 개원한 '갈바리의원'에서 시작됐고, 1980년을 기점으로 여러 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돼 왔다.

암의 말기단계에 접어들면 환자와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오랜 기간 환자를 돌보면서 경제적

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요양원에 머무르고 있을지라도 이들을 돌보기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최근에 '호스피스 돌봄'의 비용 중 일부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지불해 주고 있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환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지난 세월 미처 풀지 못한 가족 내부의 문제들을 알게 된다. 이런 경우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환자와 가족들 사이에 화해와 용서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호스피스가 문화와 사회적 환경이 다른 서구로부터 들어온 것이므로 유교적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학적, 종교적인 연구들이 뒤따라야 한다.

호스피스 돌봄은 금전으로 환산

하기 어려운 정도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호스피스 활동은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자원봉사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젊은이들이 봉사 활동에 참여한 만큼 취직, 주택 구입, 금융대출 등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전전한 보상제도를 마련해 참여를 유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호스피스 봉사는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게 해 준다.

호스피스란 '병을 고치기 위한 치료법이 더는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돋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인생의 마지막 길을 헤쳐가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모든 호스피스 지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열린마당

상호존중,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조 성수
서귀포시 소통감찰팀장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 기관 종합평점도 외부체감도 평가 분야에서 서귀포시는 전년대비 17.9점 대폭 상승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83.1점보다 6.4점이나 높은 수치인 89.5점을 얻었다. 세정 및 인·허가 분야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패 인식, 부정청탁 등 11개 모든 부문에서 2024년 대비 상승한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분들께서 직접 평가한 결과이니 보람을 더 느낀다. 무엇이든 직원들이 목표를 세우고 합심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확인했다.

서귀포시는 2026년도에도 청렴도 향상에 박차를 기하고자 지난달 21일 전 부서장,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 내 갑질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4대 추진전략과 16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갑질행위 실태는 청렴도 평가 부문 중 하나다. ▷ 갑질 실태 설문조사 연 2회 확대 ▷ 갑질 발생 위험 자가진단 ▷ 내부의 명신고시스템 운영 활성화 ▷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갑질 사례 공개 등을 추진해 실질적인 갑질 예방 구조를 확립할 예정이다.

갑질 근절의 본질은 관리자의 세심한 소통과 직원 간 서로 존중하는 상호존중이다. 서귀포시는 건강한 상호존중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수립한 계획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는 상호존중하는 조직문화가 보다 수준 높은 업무로 이어져 그 결실이 시민들에 돌아갈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 모임은 피해자가 겪은 신체

소통으로 회복을 잇는 회복적 경찰활동



김 상희
서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서귀포경찰서는 가족과 이웃 간의 교류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연휴 전후로 범죄의 상처가 개인과 공동체에 오래 남는다는 인식 아래 '회복적 경찰활동' 대화모임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저별 중심의 사법 절차와는 별도로 상담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리적 회복과 책임 있는 변화에 초점을 둔 피해자보호 프로그램이다. 이 활동의 핵심은 가·피해자의 소통과 존엄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

이 모임은 피해자가 겪은 신체

적·정서적 고통을 전문 상담가에게 충분히 표현하고 공감받으며,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연계하며 스스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되찾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과 공동체에 끼친 영향을 직면하게 해 진정한 책임 인식과 재발 방지를 유도한다.

최근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한 사람들은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갈등으로 인한 단절이 아닌 치유와 변화로의 가능성을 경험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대화모임이 피해를 당한 대상자의 일상회복과 가해대상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번 설 연휴에도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통과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에 주력할 수 있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강정종묘 종남농장

제18-서귀포-2019-20-03

신품종 우량묘 포트묘

-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신고가 된 믿을 수 있는 공식업체
- 국내육성 신품종 통상실시 계약완료
- 다양한 년수 포트묘 보유중

등록품종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카라향, 레드향,
하귤, 유라조생, 레몬.

신품종

달코미, 우리향, 미래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하례조생, 원터프린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530
(사무실)

주문전화
010.3696.1614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당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 수 없는 맛

제주도총판 대표 윤봉실
064)757-1416

삼육식품
www.sahmyook.co.kr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온·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정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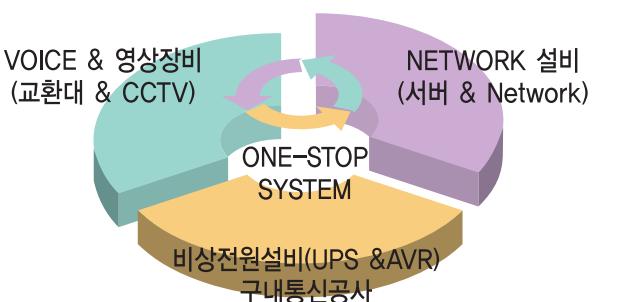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TN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